“내년 20돌 맞는 템플스테이, 지평 한 뼘 더 넓히겠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11월 30일 연말 기자회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이 11월 30일 열린 연말 기자회견서 올해 사업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내년 참가자 600만 명 돌파 ‘눈앞’
20주년 맞아 대국민 행사 준비 중
코로나에도 템플스테이 인기 ‘여전’
의료진 · 소외계층 품고 ‘공익성’ UP
사찰음식 강좌, 해외서도 수강 러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월 13일 열린 문화사업단과 외교부 협약식.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사찰간식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 사찰음식 나눔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됐다.



르 꼬르동 블루 런던 분교 학생들에게 화상으로 강의하는 법송 스님. 르 꼬르동 블루에 사찰음식이 올해 처음 정규과정에 편성됐다.

“내년 2022년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탄생한 템플스테이가 곧 어엿한 스무 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금까지 성장해온 이러한 밑거름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평을 한 뼘, 한 뼘 넓혀가려고 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11월 30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문수실에서 개최한 연말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은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원경 스님이 밝힌 올해 사업 성과는 코로나19 유행에도 고무적이다. 스님은 “올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은 총 4만 7000명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펼치며 대국민 힐링과 치유에 앞장섰다”면서 “의료인과 소방관, 방역 관계자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여행업계, 문화예술계 종사자에게 토닥토닥과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1만 2000명에게 무료 템플스테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든 11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3만 5000명에게 너른 산사에서 지친 일상을 쉬어갈 수 있게 했다”면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은 이동과 여행의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를 넘나들며 더욱 주목받고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익을 위한 사회공헌 템플스테이는 문화사업단의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3박 4일간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와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박 2일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를 무료 제공한바 있다. 6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 참가비의 30%를 할인하는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찰음식’을 활용한 사회 공익사업도 호응이 좋았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한 ‘사연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온라인 수기 모집’은 준비한 수량이 거의 소진될 만큼 많은 사연이 쇄도했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도시락 및 간식 수량을 늘려 더 많은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원경 스님은 “내년에 코로나19의 극복이 이뤄져도 일상으로의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민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나눔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이 트렌드가 된 만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 것도 올해의 주요한 성과다.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유튜브 강의, 템플스테이 체험 영상과 ASMR,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템플스테이 여행 코스 개발과 사찰음식 챌린지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의 건강함을 알렸다.

유튜버와 비건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등 집에서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콘텐츠를 확대해서 선보인 점도 눈길을 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웹툰과 음원을 개발했으며, 템플스테이 홍보관도 비대면 시대에 맞도록 리뉴얼해 개관했다. 이에 대해 원경 스님은 “웹툰과 음원은 현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완성되면 곧바로 대중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여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 공항과 각 지역을 잇는 템플스테이 여행코스 개발, 템플스테이 외국어 통역의 인력 양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서울국제 관광박람회와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전국 130여 개 템플스테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성과를 인정받았다.

원경 스님은 2014년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소임을 맡으며 템플스테이 사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7년 단장에 취임하며 템플스테이를 통한 전통불교문화 우수성을 알리는 데 매진해왔다. 스님은 “8년이라는 시간동안 수많은 발전과 변화를 지켜봤지만 올해가 가장 사업단의 저력을 보여준 해”라고 자평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문화사업단의 사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관심과 주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사업단은 세계 3대 명문 요리학교로 손꼽히는 르 꼬르동 블루 런던분교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사찰음식을 정규과정에서 강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미국과 영국의 한국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연계해 사찰음식 조리법을 강의하고 체험을 지원하며 사찰음식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기여했다.

지난 10월 13일 외교부와 협약을 맺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추진키로 한 것도 주요한 성과다. 당시 협약식에는 문화사업단 운영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협약을 통해 문화사업단과 외교부는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공공외교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 및 정보를 서로 간에 적극 제공하며, 국제기구와 주한 공관과의 교류 활동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비롯한 한국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콘텐츠도 홍보 · 제공키로 했다.

원경 스님은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요리사와 지망생이 모인 르 꼬르동 블루에서 우리의 사찰음식을 그들이 배웠으며, 정규과정 안에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면서 “외교부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더욱 다양한 나라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보여줄 통로를 넓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는 문화사업단은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 중이다. 원경 스님은 “내년 템플스테이 국내외 참가자 6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행사를 비롯해 사회 공익 템플스테이 강화, 해외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템플스테이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던 것은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도 마련하려 한다. 구체적 계획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 원경 스님은 이제 성년이 되는 템플스테이에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모두를 위한 치유와 힐링, 살면서 한 번쯤 반드시 체험해봐야 하는 한국의 전통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템플스테이를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사업단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